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증가와 글로벌 시대에 따른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와 핵가족화로 인한 독거노인, 청소년 실패 등 의료취약 계층 및 장애인 복지시설, 중증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가 필요하다.



2014년도 대한결핵협회 사업 추진방향

글_신상숙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결핵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퇴치사업

대한결핵협회는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능동적 환자발견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결핵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여 전염원을 차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결핵진단이 가능하며 장애인 검진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으로 수도권, 충청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실시, 제도권 밖에서 엑스선검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외국인 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밀집지역 대상으로 지역사회 외국인 결핵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대하고자 한다.



기금조성 및 홍보사업

취약계층 결핵문제, 다제내성 결핵, 결핵 집단발생 등으로 인한 국가 결핵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한결핵협회는 결핵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쉘 모금사업, 회원모집사업, 개인 및 기업체 후원 유치사업 등을 통해 결핵퇴치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으로 수행되는 대국민홍보사업으로 대중매체보도, 집단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보급, 보건세계 발행, 홍보물(기침예절 및 마스크 등) 제작 보급, 크리스마스 쉘 전시회, 흡연예방 및 COPD 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 2014년도에는 기부금 지정단체에서 법정기부금단체로 전환하고자 하며, 인터넷 사용증가 등으로 우표가 필요한 서신, 크리스마스카드 등의 발행이 과거에 비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쉘 대체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기업체를 통한 기금조성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기금에 의한 홍보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홍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



노숙인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사업 지원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 주변에 주거형 결핵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노숙인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와 안정적인 생활 관리를 통하여 노숙인의 결핵 문제 해결과 타인에게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노숙인의 치료, 재활을 도모하여 결핵 완치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북 병원 및 노숙인시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감염력이 차단된 퇴원환자인 노숙인 결핵환자 입소를 독려하고 있으며, 입소자는 6개월간 결핵완치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직업교육, 숙식이 제공된다. 2014년도에는 인천 또는 대전 지부에 복십자의원과 노숙인 지원 시설을 겸할 수 있는 미소꿈터 의원모델을 설치, 운영 방안을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고자 한다.



저개발국가 결핵퇴치 사업지원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2011년도부터 결핵 고위험국가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시 3개 구를 중심으로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적극적인 환자 발견 수의 증대 사업 실시를 위하여, 모바일 클리닉을 이용한 이동검진 및 건강관리요원 교육, 분자생물학적 진단장비 도입을 통한 신속한 검사로 결핵진단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동티모르, 몽골 등 지원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이 종료되는 에티오피아 사업은 본회 예산으로 2~3년간 연장하여 수행하고 그 성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북한 결핵퇴치 사업을 위한 대비

남한과 북한이 분단 60년을 거치며 한 쪽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이룬 반면 다른 한 쪽은 기아와 질병에 직면해 있다. 남북문제에 있어 '결핵'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통일로 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 만큼, 북한에서 결핵은 심각하다. WHO에 따르면 인구 2,500만 명 기준 2012년 한 해 사망자 수가 2,200명, 결핵 유병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09명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결핵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핵퇴치의 선구자,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했던 캐나다 선교의사 셔우드 홀 박사는 1928년 해주구세병원에 결핵요양소인 '결핵위생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는 한국 최초의 결핵환자 요양시설로서 진료실과 입원실을 갖춘 요양원이다. 2014년도에는 북한의 결핵퇴치를 위한 병원건립, 검사센터, 검사기술 및 결핵환자 관리 전문교육 센터 등의 구축에 필요한 준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